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2021 녹색 공급망 파트너' 선정

美 물류시장서 ESG 실천 인정
지속가능 프로젝트 발굴 고평가
공유 트럭 운송... 물류 효율 ↑

CJ대한통운 미국 통합법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의 ESG 경영 실천 노력이 현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CJ Logistics America)'가 미국 물류 전문지 인바운드 로지스틱스(Inbound Logistics)가 선정한 '2021 녹색 공급망 파트너(2021 Green Supply Chain Partner)'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물류 전문지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는 매년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회적·환경적 물류운영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기업 75곳을 선정해 '녹색 공급망 파트너' 명칭을 부여하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 중에는 DHL, UPS, 페덱스(Fedex) 등 유명 글로벌 물류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프로

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 천연가스, 프로판, 물, 재활용, 폐기물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자체 지표 설정과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측

정 및 관리하고, 정기적인 고객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는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단일 목적지를 가진 여러 고객의 화물을 공유 트럭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전체 이동 거리를 줄이는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트럭 운송은 물류 효율 증대를 통한 고객사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소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표적인 녹색물류 사례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에드바워스(Ed Bowersox) 대표는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것으로 고객, 직원, 파트너,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

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에드바워스(Ed Bowersox) 대표는 물류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물류 전문지 '디씨 빌라시티(DC Velocity)'가 선정한 '2021년 로지스틱스 레인메이커스(2021 Logistics Rainmakers)'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한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미국 식품물류 전문지 '푸드 로지스틱스(Food Logistics)'에서 발표한 '2021 톱 그린 공급자(2021 Top Green Provider)'에도 선정되며 녹색물류를 선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18일간 1180억 판매... 홈쇼핑·온라인 각광

대한민국 동행세일 결산

7대 홈쇼핑사 384개 상품 특별판매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가능성 확인"

18일간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총 1180억원 어치가 팔렸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동행세일 기간 신용·체크카드 일평균 국내 승인액은 2조 6156억원으로 지난해 동행세일 평균 2조 2501억원보다 16% 늘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동행세일 기간 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TV홈쇼핑 등을 통해 891억원, 온라인 기획전은 267억 5900만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21억 4200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폐막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중기부

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가장 매출이 컸던 TV홈쇼핑의 경우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 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

핑도 인기를 누렸다.

온라인 기획전의 경우 올해 동행세일 예선 26개 민간쇼핑몰과 '가치샵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이 두루 참여했다.

특히 지역 특산품 등의 판매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참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도 총 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라인 장보기(근거리 배송)에선 13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개 점포가 약 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서 "동행세일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반부패·청렴 선도기관 도약

2021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9일 대전 본부에서 조봉환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2021 윤리·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소진공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해 전 임직원이 함께 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진공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공단을 대표해 신입직원 2명이 조봉환 이사장과 함께 청렴 및 갑질 근절 서약 선서에도 나섰다. 앞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업무공간에 비치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신입직원과 함께 청렴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해 청렴의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봉환 이사장은 "그동안 소진공은 청렴마일리지운영, 정기적인 내부청렴도 조사 및 직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임직원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급여 우수리 기부 제도' 시행

홈앤쇼핑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 일부를 적립해 기부 선행에 나섰다.

홈앤쇼핑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급여 우수리 기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직원들의 매월 급여 중 1000원 단위 우수리를 모은 돈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나눔 예정이다.

우수리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을 뜻하는 말이다.

적은 금액으로 매월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취지가 큰 공감대를 얻으며 임직원 116명이 동참했고, 참여한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급여 우수리 만큼 회사도 기부를 진행한다.

임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모은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지역소외계층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신보중앙회 보증지원 수기 공모전 개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1년 보증지원 수기공모전'을 연다.

20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보증지원의 성공사례를 발굴, 신용보증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우리가 가면 건넌목이 된다'는 부제로 치러진다.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은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일시멘트, RPA 도입... 단순업무 간소화

국내 정보처리기업 인지소프트 참여

한일시멘트가 시멘트 업계 최초로 보틱처리자동화(RPA)를 도입해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20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PC 기반 프로그램에 입력해 동작시키는 시스템이다.

RPA 기반 업무 자동화가 구축되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경감시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현재 한일시멘트는 비용전표 처리를 비롯해 4대 보험료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시멘트 RPA 시스템은 국내 정보처리 기업인 인지소프트에서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웅진씽크빅-네이버클라우드, 합작법인 설립... 학원형 플랫폼 개발 /사진 뉴스스
▲U+모바일tv, '도쿄 올림픽' 생중계... 누구나 시청 가능

▲신규 확진자 1278명...14일째 1000명대
▲오늘 화이자 백신 186만6000회분 인 천공할 들어온다



▲전광훈 목사 "정부 방역지침은 사기... 불복종 저항" /사진 뉴스스
▲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 "방어권 보장"